

# 곡성군, 농가 290명 대상 친환경 농산물 교육 실시

###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친환경 인증 사업자 교육 병행 첫 인증시 미리 2시간 이수해야...2년마다 교육 이수도

곡성군은 지난 22일 곡성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전라남도 주관 친환경 농산물 교육이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친환경 농산물 기준 인증 농가와 신규 인증 농가 총 29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바쁜 영농철인만큼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순회 교육과 함께 친환경 인증 사업자 의무 교육도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편의를 높였다.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은 농업인들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잔류 농약 검출, 비의도적 오염 위험 등 농업인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한 친환경 인증 취소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교육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안

전성 관리에 대한 농가 실천 사항으로 농약 사용 금지, 공동 방제 사전 신고 및 단지 대표 임의 의무, 인증 취소 시 보조금 반납을 당부했다.

친환경 인증 교육은 '친환경농어업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교육이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친환경 인증 제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 신청 시 교육 이수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처음으로 인증을 받고자 할 때는 인증 신청 전에 미리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2년 마다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경우는 4년에 1회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제도 및 인증 기준, 준수 사항 등 친환경 농산물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들께서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농가 실천 사항을 잘 지켜

주시한다면 우리 군 친환경 농업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 비상근무 돌입

### 4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사업소 7개소 토요일 농기계 임대·수리 추진

나주시가 봄철 영농 성수기를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소 주말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나주시는 4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동수동 소재 임대사업소 본점과 분점 6개소(금천·봉황·문평·남평·공산·노안)에서 토요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수동 본점의 경우 본격적인 이앙철인 5월 28일부터 6월 12일까지는 토요일뿐만 아니라 일요일도 적기 이앙을 위한 농기계 임대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인에게 영농 편의를 더해줄 이번 비상근무에는 농기계 수리요원 23명이 투입된다.

나주시는 도내 최대 규모인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보유 농기계 수는 영농용 굴삭기, 퇴비살포기, 트랙터, 이앙기 등 122종, 총 1409대에 달한다. 농기계 임대는 권역별 임대사업소로 사전 유선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을 위해 임대료 50%를 인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말 비상근무를 통한 적기 영농 추진과 일손 부족 해소, 농기계 비용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법 숙지와 다음 사용자를 배려한 깨끗한 반납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도자기 공예반 운영

### 도자기 기초반·중급반 4월 개강...교육반 각각 12명 모집

화순군이 농촌 생활문화 치유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자기 공예반 교육을 운영한다.

도자기 공예반은 이양면에 위치한 '무량광도예'에서 4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4회(초급 12회, 중급 12회) 진행된다.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뉘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손 물레를 활용한 소품 만들기 이론,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기초반은 32점, 중급반은 33점을 만들 수 있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일부 재료비는

자부담이다. 교육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에 전화로 하면 된다. 교육생은 기초반 12명, 중급반 12명 모집하며 이달 28일부터 선착순으로 한다. 화순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일정 등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61-379-5434, 5456)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 구례군 "복숭아씨살이좀벌 적기방제 농치지 말아야"

### 어린 매실이 콩알만 할 때 방제적기

구례군은 매년 매실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복숭아씨살이좀벌 발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대책을 제시했다.

복숭아씨살이좀벌은 연 1회 발생하며 매실, 복숭아, 살구, 자두 등 핵과류에 피해를 준다. 매실 핵에서 월동하며 3월 하순 꽃필 무렵 성충이 되어 4월 1마리가 100여개의 알을 매실 속에 산란하는데 표면상으로는 분별이 어려워 피해상황을 잘 알 수 없다.

앞에서 부화한 애벌레는 매실 씨방을 갉아 먹으며 성장한다. 결국 수확직전 매실 과피가 갈색으로 함몰돼 90% 이상 낙과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적기에 방제하는 것이 가장 좋다.

방제적기는 매실꽃이 피고 20일 전후인 4월 중순으로 성충이 매실 속에 알을 낳는 시기다. 어린 매실의 크기가 콩알만 할 때 적용 약제로 1차 방제를 하고 7일 간격으로 2-3차 방제하는 것이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복숭아씨살이좀벌은 2010년부터 매년 피해를 주고 있고, 방제 적기를 놓칠 경우 효과가 낮기 때문에 매실 재배농가의 신속한 방제와 적극적인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 담양 창평면 이장단과 사회단체 '깨끗한 마을만들기' 나서

담양 창평면은 지난 25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창평면을 만들기 위해 창평면 이장단과 15개 사회단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슬로시티에 걸맞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 이날 대청소에서는 소재지 내 무단 투기된 쓰레기와 도로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창평을 만드는데 앞장섰다.

안영선 창평면장은 "깨끗한 창평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해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일회용품 사용안하기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